

조선시대 가사노동의 성별분업: 풍속화 분석을 중심으로

The Gender Division of Housework in the Choson Period as Expressed in Genre Painting

순천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가족아동전공

부 교수 김 성 희*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교 수 이 기 영

Dept. of Consumer and Family-Child Studies, Sunchon National Univ.

Associate Professor : Kim, Sunghee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 Lee, Ki-Yo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조선시대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의 분업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gender division of housework in the Choson period. The gender division in the Choson period has been considered as discriminative because women had to remain indoors and were excluded in social works. But in fact the Confucian idea, which regulated the relation between women and men, emphasized the gender difference and not gender discrimination. Actually it can be seen in genre painting of Choson period that women and men worked complimentarily indoors. So this article intends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the new analysis of the traditional gender division of housework by reviewing the paintings.

As the results indicate, men in the Choson period were involved in some housework, in contrast to the common idea that they maintained their authority by not participating housework. There is also some evidence that gender division benefited

* 주저자, 교신저자 : 김성희 (ksh@sunchon.ac.kr)

women to protect their own productive territory or to satisfy their needs. So it is suggested that gender division in the Choson period should be considered as a source of power as well as a disadvantage to women.

Forth, the employed mens' reemployment decision was affected from their household income, expected income after retirement, pension ownership, and attitude toward retirement.

From the finding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employed mens' age, economic status, and attitude toward retirement played a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retirement and reemployment decision making.

Key Words : 가사노동(housework), 성별분업 (gender division), 성차별(gender differentiation), 조선시대 풍속화(Korean genre painting)

I. 서론

현재 대부분의 여성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들은 현대사회의 남녀 불평등이 가부장적 성별분업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남녀평등의 성과를 성별분업의 개선에서 찾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남존여비의 차별적 관습과 내외법이 있어 남성은 사회적 노동을 주로 하고 여성은 가사노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고 있다. 전통적인 성별분업은 여성에게 기회를 제한하였던 불리한 기능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늘날 여성이 겪는 사회적 불평등과 남성이 가사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전통적 성별분업에서 기인한다고 보므로 남녀가 평등해지기 위해서는 전통적 성별분업 의식으로부터 탈피해야한다는 주장이 당연시되고 있다.

조선시대는 차별적 성별분업이 지배하던 불평등한 사회로 간주되고 있지만, 조선시대를 지배하던 유교 윤리에서는 오히려 성인지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삼강오륜(三綱五倫)에 따르면 부부유별이라 하여 남자는 남편으로서 여자는 아내로서의 본분과 역할이 있고 각자는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보완적 관계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조선시대 성별분업이 보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풍속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였지만 여성의 일로 알려진 가사노동에 남성의 관여가 적지 않았다. 남존여비의 차별적 관습에 따라 여성만이 가사노동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남성도 여성과 더불어 가사노동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성별분업은 윤리적인 면으로 보나 실제적인 면으로 보나 보완적으로 수행된 측면이 적지 않았음에도 현재 전통적인 성별분업에 대한 연구와 주장은 차별적인 것으로만 일관되어 있다. 게다가 조선시대 여성들은 성별분업에 의해 제한을 받은 수동적인 존재로만 부각되고 있고, 성별분업이 여성에게 유리하게 이용되었을 가능성은 배제된 채 불리하게 작용하였던 측면만 강조되고 있다.

전통사회의 성별분업에 성차별적인 측면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성인지적인 요소나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단선적인 남성중심의 시각이 여전히 여성연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보성과 향상성, 권력을 중시하는 근대적 남성관이 조선시대의 여성을 폄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대적 시각은 성차별적인 사회에서 성평

등한 사회로의 진화를 가정함으로써 시대와 공간에 따른 특수성, 여성이 갖고 있는 본성의 다양성을 드러내는 데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을 보는 시각을 다각화하고 조선시대 여성의 다양한 본성을 발견하려는 입장에서 여성만이 차별적으로 가사노동을 수행하지 않았고 남성도 보완적으로 가사노동을 수행하였으며 성별분업이 여성에게 불리한 작용만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여성들이 성별분업을 자신의 영역을 보호하고 욕구를 표현하는 장치로서 이용하였을 가능성을 밝힘으로써 조선시대 여성의 소극적 특성과 더불어 적극적인 본성도 탐색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가부장적 성별분업의 성인지적 특성을 재조명하고, 전통사회의 성별분업이 성차별적이지만은 않았다는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참여는 오히려 전통사회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새로운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할 것이다. 조선시대 성역할분담이 여성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성이 자신의 영역과 욕구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된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성별분업이 성평등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줄 것으로 본다.

II. 연구방법

1. 분석의 틀과 연구의 한계

조선시대는 자급자족적 시대로 가내에서 생산된 가계생산물은 일차적으로 가족원을 위해 사용되었다. 가내에서 수행된 의식주생활 관련 노동 및 육아활동은 조선시대에도 일차적

으로 가족원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수행되었다고 보므로 가사노동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직조물이나 농산물과 같은 생산물은 그 일부가 조세로 납부되거나 시장에서 물물교환되어 오늘날의 직업노동과 같은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였기 때문에 직조나 농사와 관련된 노동은 가사노동이 아닌 경제활동으로 보아야 할 측면이 없지 않다. 조선시대에 가내에서 수행된 노동을 가족원의 재생산을 위해 수행된 가사노동과 교환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수행된 경제활동으로 구분해 보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의 성격보다 성별분업의 실태조사에 초점을 두므로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을 명확히 구분하지는 않는다. 가정에서 수행된 노동은 우선적으로 가족원의 필수적인 소비를 위해 수행되었다고 보고 직조와 관련된 노동과 농사와 관련된 노동을 가사노동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내외법의 영향을 보기 위해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을 가내와 가외의 영역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조선시대 여성과 남성의 노동은 사회계급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양인 여성과 달리 양반 여성은 육체적인 노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관리적인 일을 주로 하였다(김성희, 1999). 남성의 경우도 양반은 노력자의 일을 소인의 일로 간주하였고(이종호, 1993), 흉대용이 비판하듯이 비록 굶는 한이 있더라도 팔을 끼고 앉아 손수 일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김용덕, 1981), 가사노동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다. 조선시대의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을 분석함에 있어 계층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회화 속에서 신분계급을 구분해내는 것은 복식을 통해 가능하다. 조선시대에는 복식금지 제도가 있어 복식으로 신분을 구분하였다. 도포는 양반 신분의 상징이었고, 양반과 상민은 슬퍼의 착용으로 구분하였다(한국고문서학회,

2006). 양인 부녀도 양반 부녀와 달리 포(袍)를 입지 못하였고 쓰개는 장옷, 천의에 한했고, 삼회장저고리를 입지 못하였으며 치마도 오른쪽으로 여미어 입었다. 특히 하층 계급은 '거들치마'라 하여 치맛자락을 치켜 여미어 입어 속옷이 바깥에 나타나 보이게 입어 그 신분을 표시하였고, 폭이 좁고 길이가 짧은 '두루치'를 흔히 입었다(백영자, 1998).

이처럼 계급에 따라 복식 제도에 차이가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의복 행태를 통해 신분을 구분해내기는 쉽지 않다. 특히 17·8세기에는 신분사회가 해체되면서 서민들도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천민들도 도포를 입는 등의 복에서 존비의 절도가 없어지게 된다(이민주, 2004). 제도의 규정과는 달리 조선시대 여성의 복식에는 사치억압 이외에 그다지 큰 차이가 없었다는 주장도 있으므로(유희경, 1983) 인물의 복식만으로 신분을 명확히 구분해낼 수는 없다.

이런 한계점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신분에서 따른 가사노동 수행의 차이를 명확하게 다루지는 못하였다. 대략적으로 양반과 비 양반계층으로 나누어 보았을 뿐이므로 연구결과를 신분에 따라 엄격하게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선시대의 성별분업에 관한 기술이 양반계층이 서술한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양반계층에의 편이기가 있어 왔다고 본다면 본 연구는 양인과 천인을 포함한 회화를 분석하므로 역사적 서술에서 소외되어 있던 계층을 포함하는 의의를 갖는다. 특정 계층이 아닌 전 계층을 망라하므로 조선시대의 성별분업을 평균적으로 기술하는 의의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자료

조선시대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에서의

성별분업을 고찰하기 위해 17세기 이후 20세기 걸쳐 그려진 조선시대의 풍속화를 사용하였다. 풍속화는 조선시대의 실제 생활상을 보여주는 자료로 유용하지만 회화에만 의존해서는 당시의 생활을 기술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문헌자료를 보조 자료로 이용하였다.

조선시대의 회화에는 풍속화, 빈풍칠월도류(飢風七月圖流),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성시전도(城市全圖), 궁중과 관아 행사도, 계획도(契會圖), 평생도(平生圖), 감로도(甘露圖)가 있다(정병모, 1998). 이들 회화 중 여성과 남성의 노동 실태가 나타나는 회화를 분석자료로 삼았다. 윤두서와 조영석, 김홍도, 김득신, 신윤복, 김두량, 심사정, 윤용, 김윤겸, 김희겸, 신한평, 마군후, 유운홍, 이한철, 김준근의 회화 및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작자의 회화를 포함하여 조선시대 풍속화를 거의 총망라하는 총 93점을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정병모, 2001; 윤열수, 2000; 이태호, 2000; 안휘준, 1986; 중앙일보사, 1985)

III. 조선시대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 분업

1. 식생활과 관련 가사노동

일반적으로 식생활과 관련된 일은 전통적으로 여성이 하였던 일로 간주된다.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속담에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생식기가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다. 조선시대의 남성은 가사노동에 관여치 않음으로써 위신을 세우고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조선시대에 부엌에서 이루어지는 조리과 관련된 주요한 일은 여자들에 의해 이루어

어졌다. 김준근의 풍속화에서 여자가 밥을 지으며 상을 차리는 것을 볼 수 있다<표 1-1>. 조선시대 중종조의 어숙권은 패관잡기에 “무릇 관청이나 사가에서 밥을 짓고 제구를 공급하는 것은 모두 여인이다.”고 기록하고 있다(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83). 밥을 짓고 상을 차리는 일은 여성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식사준비와 관련된 일을 여성이 하기는 하였지만 모든 여성이 부엌일을 하지는 않았다. 유희춘(1513-1577)의 미암일기(1993)에 “비(婢) 순지를 첩에게 줬다. 비가 없기 때문이다. 집에 밥 짓고 물기를 종이 없어 아주 가련해서 줬다”고 했다. 신분이 낮은 노비 계층의 여성이나 노비가 없는 가정의 여성만이 직접 밥을 짓고 상을 차렸다. 노비를 부릴 수 있는 가정과 부릴 수 없는 가정에 차이가 있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부엌에서 이루어지는 식품조리와 관련된 일은 여성이 하였다.

이 밖에도 식생활과 관련해서 여성이 하였던 일로 풍속화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절구질하기, 디딜방아 찧기, 개울가나 공동우물에서 물 길기, 물동이 이고 나르기, 눈에 점심 가져다주기, 두부 만들기, 나무의 열매 채집하기, 나물 캐기가 있다<표 1-1>. 조선시대 여성은 절구나 방아로 곡식을 찧고 개울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밥을 짓고 나물과 열매를 채집해서 찬을 마련하고 점심을 지어 눈에 나르는 일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식생활과 관련된 많은 일들이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풍속화에서는 남성도 가사노동에 적지 않게 관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통적 속담에 따르면 조선시대 남성은 다른 어떤 일보다 식생활과 관련된 가사노동에 관여치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풍속화에서 보는 조선시대 남성은 오히려 식생활과 관련된 가사노동을 적지 않게 수

행하고 있었다.

김두량과 김홍도, 작자미상의 풍속화 등 여러 그림에서 남자들이 디딜방아를 찧는 것을 볼 수 있다<표 1-2>. 조선시대 말기 사진에서는 두루마기 입은 남자가 물레방아 간에 말을 매어두고 곡식이 찢어지질 기다리는 것도 볼 수 있다(조풍연 해설, 1996). 조선시대에 곡식 찧기는 여성만이 한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서도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부유한 계층의 남자들은 곡식을 직접 찧기 보다는 찧는 것을 감독하는 일을 하였다. 부유한 농가를 그린 풍속화 치사<표 1-2>에서 가장이 방아 찧는 남자들을 감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유계층은 사회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육체노동을 경시하였던 양반 계층에서도 부농 인구는 19세기에 7.1%에 불과하였다. 중농은 11.3%, 소농은 25.6%, 빈농은 55.0%로 양반의 경우도 대부분은 영세하였다(김용섭, 1972). 부농이나 중농을 제외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대부분의 빈농의 농가에서는 남녀가 공동으로 곡식 찧기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준근의 그림에서 내외법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 앉아 맷돌을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내외법에 따라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남녀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작업도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말기의 사진에서는 남자 농민이 자녀들과 더불어 절구질을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조풍연 해설, 1996). 조선시대에는 알곡으로 식량을 저장되었고, 곡식 찧기는 거의 매끼니 요구되는 일이었다. 일의 양과 빈도로 미루어 볼 때 남자들이 방아를 찧는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 식생활에 필요한 물은 집밖 마을의 공동우물이나 강물, 냇물에서 길어다 썼

다. 김홍도와 김득신, 김준근 등의 풍속화에서 여성이 우물과 개울가에서 물을 길어오는 것을 볼 수 있다<표 1-1>. 주로 여성들이 물동이로 물을 끌어오면서 물을 공급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풍속화에서는 남성들도 지계를 지고 동이나 독을 나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 풍경을 보여주는 사진에서도 강가에서 여성들이 물동으로 물을 길고 있는 한 쪽에서 남성이 지계에 물을 길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조풍연 해설, 1996).

조선시대 말기에 물장수라 하여 물을 지어다 파는 특수 계층의 남성들이 있었다.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토목사업지(1937)에 따르면 물장수가 생겨난 때는 1813년경이라 한다. 물장수가 생겨나기 이전의 18세기 그림에 남성이 지계를 지고 동이나 독을 나르는 것은 상업적인 목적에서가 아닌 일상적인 필요에서라고 볼 수 있으므로 회화속의 남성들이 운반하는 것은 물 등의 식료로 추정해볼 수 있다.

한편 남성은 상 시중을 들고 상을 나르는 일도 하였다. 풍속화에서 어린 소년이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을 위해 차 다리는 시중을 들고 있고, 하인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상 시중을 들거나 상을 나르는 것을 볼 수 있다<표 1-2>. 이들은 주로 주인의 시중을 드는 노비나 고용인으로 추정되지만, 그 신분이 노비였을지라도 상차림과 상 시중에 남성이 관여하였다는 것은 명백하다. 노비계층에서는 남자라 하더라도 어린 시절부터 식생활과 관련된 가사노동에 적지 않게 관여하여 성에 따른 역할분담 의식이 엄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식품의 제조는 대부분 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빙허각 이 씨가 기록한 조선시대 여자들이 제조하였던 식품에 관한 기록서인 ‘규합총서’에 보면 밥과 반찬 외에 여러 가지 술, 장, 초, 차, 떡, 기름 등 여러 가지가 여성에 의해 제조되었다(빙허각 이씨,

1988). 여자들이 조리를 하였으므로 식품제조는 여성만의 일이었다는 것으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남자들도 식품제조에 관여하였던 것을 풍속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준근의 풍속화에 남성들이 옛 만들기와 국수 만들기를 하고 있다<표 1-2>. 국수 만들기 그림에서는 남자들이 국수를 만들고 여자가 이를 감독하고 있어서 상류층의 부인이 남자 하인에게 일을 시키고 있거나 국수 가게 주인 여성이 고용인에게 일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성별보다는 주종의 신분관계가 가사노동 작업 수행에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들은 옛 만들기와 국수 만들기 외에 떡치기와 기름 짜기도 하였다(조풍연 해설, 1996). 조선시대에는 남성들이 식품 제조에 관여하는 것이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식품을 공급하는 일에서는 오히려 여성보다 남성의 역할이 더 컸다. 자급자족의 식품 공급 체제 속에서 쌀 등의 주요한 식품을 공급한 사람은 남성이었다. 증보문헌비고(1645)에 “농사지은 즉 먹으며 포를 짠 즉 입는다(이복만, 1948, p107에서 재인용)”라고 한 것은 조선시대가 남성이 지은 농사와 여성이 생산하는 직조에 의존하는 자급자족적 생산소비양식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표 1-2>과 <표 2-1>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1-2>의 풍속화에 따르면 남성들은 농사와 관련해서 쟁기와 팽이, 소를 이용해서 논갈기, 논에 물대기, 씨뿌리기, 논에 물푸기, 논에 물대기, 가래질하기, 논에 씨레질하기, 벼심기, 김매기, 소 몰기, 키질하기, 타작하기, 담배 잎 손질하고 썰기, 농사일 감독하기, 지계로 논에 점심 나르기와 같은 많은 일을 하였다.

여자들도 농사와 관련된 일을 하였는데, 풍

속화에서 모내기, 김매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논보다는 밭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나물 캐는 것을 볼 수 있다<표 1-1>. 농사와 관련된 풍속화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많이 보이는 것은 남성이 주로 농사를 짓고, 여성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성들은 곡식을 공급하는 것 외에 들판에서 사냥하거나 물고기를 잡고 소젖을 짜서 부식을 제공하는 일도 하였다. 풍속화에서 남성들이 사냥하는 것, 고기를 잡는 것, 소젖을 짜는 것과 과실을 따는 것을 볼 수 있다<표 1-2>. 여자들도 농사를 짓고 밭일을 하고 과실을 따서 식품을 공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여자들이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는 그림은 찾아보기 어렵다. 가외에서 육류 등의 식료를 공급하는 일은 거의 남성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남성들이 주로 식품을 공급하는 일을 하였지만 양반 남성의 경우는 직접 식품을 생산하거나 포획하지는 않았다. 농사짓는 것을 관리 감독하거나 노비를 시켜 식품을 조달하였다. 양반 남성으로 보이는 관리인이 농사를 감독하는 것은 김홍도의 김득신의 풍속화에서 볼 수 있다<표 1-2>. 양반의 일기 쇠미록에서도 ‘사람 6명을 얻고 두 계집종을 시켜 보리밭을 매었다(병신년 3월 19일)’ ‘종을 시켜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게 하여 저녁식사에 끓여 먹었다(병신년 7월 4일).’ 와 같이 식품 조달을 지시하고 관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 남성은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가족의 식품을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식료를 공급하는 일 뿐 아니라 식량을 저장하고 보관 관리하는 일도 남자가 하였다. 김준근의 풍속화에 남성들이 겨울의 식량을 움막에 저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표 1-2>. 양반인 오희문(1990)도 쇠미록에서 ‘죽제비가

또 와서 꿩 한쪽을 물어갔으니 아까운 것을 이길 수 없다. 명복에게 명하여 다니는 구멍 밑에 덧을 놓게 했다(계사년 윤 11월 29일), ‘취가 방에 들어와 송어 한 마리 반과 동어 두 두름을 물어갔다(계사년 윤 11월 27일), 잡는 구덩이를 설치하게 하였다.’ 고 식품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선시대 남성들은 식품의 생산에서 가공, 저장에 이르는 과정에도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식생활 영위에 필요한 연료도 남성에 의해 조달되었다. 김홍도의 풍속화에 소년과 남자들이 나무를 지게에 해오는 것을 볼 수 있다<표 1-2>. 식품을 담은 용기도 남성이 만들었는데 남성이 체를 만들고 앉아 있는 것을 조선시대 사진에서 볼 수 있다(조풍연 해설, 1996). 이 외에도 남성들이 가마니를 짜고 새끼를 꼬는 것을 풍속화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다<표 1-2>. 짚으로 제작되는 식품 저장 용기들은 대부분 남성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가 자급자족의 경제체제를 갖고 있었으나 모든 생필품이 자가 생산된 것은 아니었다. 집에서 직접 만들기 어려운 용기 등의 식기는 상인에게서 구입되었고 식기 수리도 상인에게 맡겨졌다. 소금, 생선 등의 자가 생산이 어려운 식품도 상인에게서 구입되었다. 풍속화에서 여성들이 용기장수에게서 용기를 구입하고, 닭 장수에게서 닭을 구입하거나 바가지 수리공에게 바가지를 수리 받는 등의 구매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표 1-1>. 조선시대 사진에 따르면 행상이 지고 다니던 식품으로 닭 외에 돼지도 있었고, 용기장수 외에 바꾸니 장수도 있었다(조풍연 해설, 1996).

조선시대 여성에게는 바깥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일반 여성들은 가가호호 방문하는 상인으로부터 필요한 식기와 식품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였다. 직접 장에 나가 생활필수품을 사오기도 하였는데 김준근의 풍속화에 장에서 남성 판매자로부터 옷감을 사고 있는 여인을 볼 수 있다<표 2-1>. 조선시

대의 사진에서도 시장에 나와 있는 여성들을 흔히 볼 수 있다(조풍연 해설, 1996). 이들 여성은 대부분 흰옷에 머리 수건을 쓰고 있어 양반가의 여성이 아닌 노동 계층의 여성으로

<표 1-1> 식생활과 관련된 여성의 가사노동

작가	제목	제작 연도	여성의 가사노동	
			가내노동	가외노동
김홍도	경직도	18세기	절구질	
조영석	절구질	18세기	절구질	
유운홍	겉쌈	19세기	맷돌질	
김준근	맷돌질	19세기	맷돌질	
김준근	방아	19세기	디딜방아 짚기	
김준근	디딜방아	19세기	여럿이 디딜방아 짚기	
김준근	절구질	19세기	절구질하기	
김준근	밥 푸고 상차리기	19세기	밥 짓기	
김준근	두부 만들기	19세기	세 명의 여자가 두부 만들기	
작자미상	평생도	20세기	혼인식이 있는 집의 상 나르기	
작자미상	회혼도	20세기	회혼식이 있는 집의 상 나르기	
작자미상	경기감영도	19세기		동이 이고 나르기
김홍도	평양감사향연도	18세기		동이 이고 나르기
김득신	시골양반집	18세기		물동이 이고 물 길어오기
김홍도	경직도	18세기		개울가의 물 퍼 담기
김홍도	우물가	18세기		공동우물에서 물 길기
김준근	물 길기	19세기		물동이 이고 물 길으러 가기
김홍도	경직도	18세기	옹기장수에게서 옹기구입	
김홍도	경직도	18세기	닭 장수에게서 닭 구입	
김준근	바가지수리 노인	19세기	바가지 수리하는 노인에게 바가지 수리	
이한철	세시풍속도병	19세기		눈에 점심 나르기
김두량	사계산수도	18세기		눈에 점심 나르기
김홍도	수경열출	18세기		눈에 점심 나르기
작자미상	경직도	19세기		눈에 점심 나르기
조영석	점심	18세기		농부에게 점심 주기
김홍도	점심	18세기		농부에게 점심 주기
김득신	점심	18세기		농부에게 점심 주기
우진호	경직도병	19세기	과실 따기	
윤두서	나물 캐기	17세기		나물 캐기
윤용	나물 캐는 아낙	18세기		나물 캐기
마군후	나물 캐는 여인	19세기		나물 캐기
김홍도	춘경우경	19세기		나물 캐기
작자미상	행려풍속도	19세기		나물 캐기
이한철	세시풍속도병	19세기		모내기
김홍도	농가시찰도	18세기		김매기

〈표 1-2〉 식생활과 관련된 남성의 가사노동

작가	제목	제작 연도	남성의 가사노동	
			가내노동	가외노동
김준근	맷돌질	19세기	여자와 함께 맷돌 갈기	
김두량	사계산수도	18세기	곳간에서 디딜방아 찧기	
김홍도	가가유름도	18세기	곳간에서 디딜방아 찧기	
작자미상	평생도	20세기	디딜방아 찧기(2명이 일함)	
작자미상	경기감영도	19세기		지게로 동이 지고 가기
오명현	독 나르기	18세기		지게로 독 나르기
작자미상	풍속화첩	18세기		지게에 독 나르기
작자미상	수갑계첩	19세기	계모임에서 상 나르기	
김홍도	평생도	18세기	술시중 들기 상 나르기	
작자미상	평생도	20세기	차 시중들기(소년)	
유숙	수계도련	19세기		야외에서 선비들의 계모임에서 차를 다리는 소년
김홍도	군현도	19세기		야외에서 차 시중들기
김준근	쌍육	19세기		상 차리는 일 시중들기
김준근	엿 만들기	19세기	엿 만들기	
김준근	국수 만들기	19세기	국수 만들기	
조명우	착유	19세기	소 젖 짜기	
김준근	겨울갈무리	19세기	겨울 식량 저장하기	
이방운	빈풍칠월도	18세기		나무에서 과일 따기
김두량	사계산수도	18세기		들판에서 사냥하기
김홍도	행려풍속도병-해암타어	19세기		물고기 잡기
작자미상	경기감영도	19세기		말로 장작 나르기
작자미상	경기감영도	19세기		지게에 나무 해오기
김홍도	노방노파	18세기		지게에 나무 해오기
김홍도	웃놀이	18세기		지게에 나무 해오기
김홍도	행려풍속도병	19세기		쟁기와 팽이로 밭 갈기
김홍도	논갈이	18세기		소를 끌며 쟁기로 밭 갈기
양기훈	뇌경	19세기		소로 쟁기 끌기
양기훈	우경도	19세기		소로 쟁기질하기
김홍도	경직도	18세기		논에 물대기, 씨 뿌리기, 논 갈기
김준근	논 물푸기	19세기		논의 물푸기
김준근	논물주기	19세기		논에 물대기
김준근	가래질	19세기		가래질하기
김준근	씨래질	19세기		논에 씨래질하기
김준근	씨뿌리기	19세기		씨뿌리기
김홍도	경직도	18세기		벼 심기
김준근	벼부중	19세기		벼 심기
김홍도	행려풍속도병	19세기		지게로 짐승 나르기
김준근	김매기	19세기		김매기
김홍도	행려풍속도병	19세기		소 물기
심사정	벼 베기	18세기		벼 베기

〈표 1-2〉 계속

작가	제목	제작 연도	남성의 가사노동	
			가내노동	가외노동
김준근	도리깨질	19세기		벼 베기
김준근	키질	19세기		키질하기
김두량	사계산수도	18세기		타작하기
김홍도	행려풍속도병	18세기		논에서 타작하기
김홍도	벼 타작	18세기		벼 타작하기
김두량	사계산수도	18세기		타작하기, 키질하기
김홍도	담배 썰기	18세기		담배 잎을 손질하고 썰기
김홍도	벼 타작	19세기		농부들이 벼 타작하는 것을 옆에 누워 감독하기
김득신	벼 타작	18세기		언덕에 앉아 논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벼 타작을 감독하기
김홍도	행려풍속도병	19세기		농사일 감독하기
작자미상	치사	20세기		집안의 중심에 앉아 방아 찧기 감독하기
김준근	가마니 짜기	19세기	가마니 짜기	
김득신	형래풍속도병	18세기	가마니 짜고, 새끼 꼬기	
김준근	새끼 꼬기	19세기	새끼 만들기	
김홍도	행려풍속도병	19세기	가마니 짜기, 새끼 꼬기	

보인다. 중하류 계층에서 장보기는 남성과 더 붙어 여성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양반가에서는 시장 상품의 구매는 남성에게 의해 관리되었다. 쇠미록에 가장이 술과 소고기와 같은 구입물품을 결정하고 지시하는 것을 다음의 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술이 깨져서 장에서 벼 2두 5승을 주고 술을 사왔다(갑오년 6월 7일)’, ‘이웃에 소를 잡아 파는 자가 있어 보리 8두를 주고 쇠머리와 포만들고기 세 덩어리와 내장 조금을 샀다(갑오년 6월 13일).’

계층에 따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장보기를 지시하고 관리하는 일은 남성이 하였고 직접 사고파는 일에는 외출이 금지되었던 여성도 적지 않게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성들의 장보기에서 보듯이 여성들이 반드시 가내에서만 가사노동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식생활과 관련된 일 중 여성들이 가외에서 한 일에는 물을 길어오기, 밭일하기,

나물 캐기, 논에서 일하기가 있었다. 한편 남성들도 가외에서만 가사노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 가내에서 곡식을 찧고 식품을 제조하고 용기를 제작하는 일을 하였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속담에서는 식생활의 중심지인 부엌을 여성만의 장소로 제한하고 있다. 통념적으로 남성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제한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남성들이 식생활과 관련된 가사노동에 상당 부분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때, 남성이 여성에 대한 우월한 가부장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그러한 제한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관리적인 일을 수행하던 상류계층의 남성이 육체노동을 수행하던 하류계층의 남성에 대해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제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여성이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성을 배제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내외

법에 따라 생활공간도 남성의 공간과 여성의 공간으로 분리하였다. 남성은 사랑채 또는 사랑방, 여성에게는 안채 또는 안방이 배정되었지만 여성의 공간으로 주어지는 안방은 가정 생활의 중심지로 육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여성들이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엌으로부터 남성을 위협적으로 배제시켜야 했을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성역할 분담은 다른 어떤 일보다 식생활 영역에서 성차별적이었던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보완적이었던 것을 풍속화에서 볼 수 있다. 식생활과 관련된 일들 중에 힘이 많이 들거나 가외에서의 작업이 많은 연료 조달, 논농사는 남성이 주로 하였고 조리과 텃밭의 농사는 주로 여성이 하였다. 빈도가 높은 방아 찧거나 물 길어 오기는 남녀가 공동으로 하였다. 유교 윤리가 강조하는 것처럼 실제에 있어서도 성별분업은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가사노동에서 남성의 역할이 지금까지 간과되어 온 것은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남성들이 주로 신분이 낮은 계층이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계층의 남성이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이들의 노동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남성의 가사노동은 해서는 안되는 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의생활과 관련된 가사노동

조선시대에 의생활과 관련된 일도 여성만이 하던 일로 알려져 있다. 풍속화에 여성들이 길쌈하며 염색하고 바느질하고 다림질, 마름질, 다듬이질, 빨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2-1>. 남성들도 의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었는데 풍속화에서 남성이 직조의 부품인 바

디를 손질하는 것을 볼 수 있다<표 2-2>. 직물을 짜는 일은 여성이 하었다고 하더라도 직조 기구는 남성이 만들고 수리하는 상호보완적인 역할분담이 있었다. 또한 남성들은 옷감을 짜거나 옷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의복 부속품을 만드는 보완적인 일을 하였다. 풍속화에 남성이 짚신을 만들고, 망건을 짜는 것을 볼 수 있다<표 2-2>.

남성들은 의복의 구입과 교환, 의복의 조달과 같은 관리적인 일에도 관여하였다. 양반이었던 오희문의 쇄미록(1990)에 ‘춘이를 보내서 포목을 가지고 홍주 시장에 가서 모시와 보리로 바꿔 오라 했더니 값이 맞지 않아서 그대로 돌아왔다(계사년 5월 25일)’, ‘가죽 공인이 아이들의 신을 지어왔는데 두 딸 아이 것은 너무 좁고 적어서 도로 주면서 다음에 만들어 보내도록 일렸다. 어머니 신과 두 손녀의 신 값도 내 주었다(임진년 10월 3일)’, ‘세 아들의 귀 가림을 만들었고 두 종도 귀 가림을 얻었으니 겨울을 지내기에 근심이 없겠다(임진년 10월 3일)’ 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의생활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남성들이 의생활에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는 식생활에 관여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적었다. 바느질, 세탁, 다듬이질, 다림질, 마름질, 누에치기, 목화 따기, 베 짜기, 씨 날기, 물래질, 실 널기, 목화틀기, 삼 삼기, 무명 날기, 비단 짜기, 염색하기 등의 의생활과 관련된 일이 거의 전부 여성에 의해 이루어졌다. 풍속화에서 바디 손질하기, 짚산 삼기, 망건 짜기 외에 빨래, 바느질, 다듬이질, 다림질을 하는 남성을 찾아볼 수 없다. 직조에 관한 풍속화는 많지만 남성이 직조하는 것을 볼 수 없다. 남성의 일이었던 농사에 여성의 관여가 적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 보면 조선시대의 성역할 구분은 식생활 영역보다 의

생활 영역에서 더 뚜렷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에 조선에 거주하였던 조지해버존스와 그의 부인은 그들의 저서 ‘조선 여성의 지위’와 ‘조선의 신부’라는 글에서 ‘조선의 남

자치고는 바늘을 붙잡는 이가 없다(김영희, 1938 재인용)’고 하였다. 조선시대에 바느질은 여성만이 하던 일이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김준근의 모의장(毛衣匠) 그림에서 남성이 모피 옷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표

(표 2-1) 의생활과 관련된 여성의 가사노동

작가	제목	제작 연도	여성의 가사노동	
			가내노동	가외노동
유운홍	길쌈	19세기	빨래 널기	
조영석	바느질	18세기	마름질, 손바느질	
신윤복	다림질	19세기	숯 다리미질	
김준근	옷감다루기	19세기	다림질, 다듬이질, 마름질, 바느질, 마름질	
김홍도	빨래터	18세기		계곡에서 세탁하기
신윤복	단오놀이	19세기		계곡으로 빨래하러 가기
신윤복	계변가화	19세기		개울가에서 세탁하기
작자미상	풍속화첩	19세기		개울가에서 세탁하기
김준근	빨래	19세기		개울가에서 빨래방망이질 하기
김준근	옷장사	19세기		시장에서 옷감사기
김준근	태 만들기	19세기	망건의 태 만들기	
김준근	초립 짓기	19세기	초립 만들기	
심사정	전가락사	18세기	직조	
김홍도	길쌈	18세기	베 짜기, 씨 날기	
김홍도	자리 짜기	18세기	물레질	
김두량	사계산수도	18세기	베 짜기	
작자미상	치사	20세기	베 짜기	
우진호	경직도병	19세기	물레질, 베 짜기, 누에치기	
김홍도	경직도	18세기	직조, 물레질	
유운홍	길쌈	19세기	직조	
김준근	베실 널기	19세기	베실 널기	
김준근	목화틀기	19세기	목화틀기	
김준근	뽕잎주기	19세기	누에에게 뽕잎주기	
김준근	삼 삼기	19세기	삼 삼기	
김준근	길쌈	19세기	무명 날기	
김준근	비단 짜기	19세기	비단 짜기	
김준근	물레질	19세기	물레질하기	
김준근	베매기	19세기	베매기	
작자미상	경직도	19세기	누에치기	뽕잎 따기
김홍도	파안홍취	18세기		목화 따기
김준근	염색	19세기	옷감 염색하기	

〈표 2-2〉 의생활과 관련된 남성의 가사노동

작가	제목	제작 연도	남성의 가사노동	
			가내노동	가외노동
김준근	바다	19세기	부인과 바다손질하기	
윤두서	짚신삼기	18세기	나무 아래에서 짚신 삼기	
김득신	짚신삼기	18세기	집 뜰 앞에 앉아 짚신을 삼기	
작자미상	풍속화첩의 망건 짜기	19세기	나무 아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망건 짜기	

2-2>. 장인(匠人)으로서 상업적 목적에서 특수한 의복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남성도 바느질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직조물은 조세로 납부되었고 물물교환 경제체제에서 농산물에 버금가는 교환가치를 갖고 시장에서는 화폐로 유통되었다(김성희, 2001). 이처럼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를 갖고 있던 일을 여성만이 수행하였다는 것은 남성이 지배하던 가부장적 사회에서 그 이윤을 찾기 쉽지 않다.

직조가 여성의 섬세함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실내에서 행해지는 노동이라 여성에게 강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피옷을 만드는 모의장의 경우는 남성이 상업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일의 특성만으로 분업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일반 의복 제작이나 직조도 남성이 충분히 상업의 대상으로 삼아 권력을 더 증가시킬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남녀 간의 성별분업이 경쟁적인 차별성보다 보완성에 기초할 때 가능하다.

조선시대 성별분업에 관해서는 남성이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제한한 측면만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통념과는 다르게 여성이 남성의 관여를 제한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남존여비라는 여성에게 불리한 관습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직조물을 생산함으로써 경제력을 가질 수 있었다. 직조를 통해 가계운영에 관여함으로써 가내에서 남성이 무

시할 수 없는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김성희, 2001). 따라서 여성들은 자신의 생산영역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성별분업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고유 영역에서 남성을 배제하였을 수 있었을 것이다. 남성의 일이었던 농사에 여성의 참여가 적지 않았던 반면, 여성의 일이었던 직조에는 남성의 관여가 전혀 없었던 것은 가부장적 요구보다 여성들의 배타적 욕구가 더 컸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 보인다. 조선시대의 내외법에 의한 성별분담은 여성에게 불리했던 제도로서만 간주되고 있지만 직조에 관한 한 여성의 생산영역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세탁의 경우도 여성의 성별분업의 이용가능성을 보여준다. 세탁은 힘이 많이 드는 일로 계곡이나 개울가와 같은 가외에서 행해졌지만 남성이 관여하지 않았다. 강이나 개울가에서 물을 길어오는 일에 남성이 관여하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세탁을 여성만이 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다. 일반 남성이 아니더라도 노비 계층의 남성에게는 맡겨질 수 있는 일이었다. 남성이 여성의 외출을 제한하면서도 가외에서 수행되던 세탁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성이 의도적으로 세탁에서 남성을 배제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윤복의 풍속화에 여성은 빨래를 하면서 목욕도 하고 그네도 타며 한가한 여가시간도 보내고 있다. 가외에서의 활동이

제한된 여성이 가외에서 허용된 여가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성별분업을 이용하여 세탁을 여성의 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3. 주생활과 관련된 가사노동

조선시대에 거의 모든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이었을 것이라는 통념과는 다르게 여성이 주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풍속화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주생활과 관련된 가사노동은 주로 남성에 의해 이루어졌다.

풍속화에서 보듯이 조선시대 주요한 연료였던 장작을 마련한 것은 남성이었고 방바닥 재료였던 자리를 만들고 마당을 청소하고 교통수단이자 운반수단인 말을 손질한 사람은 남성이었다<표 3-1>.

조선시대에 난방 및 취사 연료는 장작이 사용되었다. 나무를 베어서 만드는 장작은 시전에서 팔았으므로 이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었지만(고동환, 1994),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가족원 중 남자가 공급하였다. 김홍도의 ‘웃놀이’ 등의 풍속화에 산에서 나무를 베어 지계에 지고 오는 남자나 소년, 말에 장작을 실어

나르는 남자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표 3-1>. 양반 가정에서는 남자 노비가 장작을 마련하였다. 쇠미록에 ‘덕노를 임천 집에 보내서 나무를 베어주고 오게 했다(병신년 1월 26일)’는 기록이 있다. 신분에 따라 노비가 하기는 하였지만 난방 연료를 마련하는 일은 남성들의 일이었다.

조선시대 방바닥은 중상류 계층에서는 기름종이를 장판으로 사용하였다(이샤벨라 버드비숍, 1994). 일반가정에서는 깔개로 새끼를 파서 만든 멍석이나 삼을 짜서 만든 자리띠, 대나무나 싸리를 엮어서 만든 삿자리 또는 갈대나 수숫대로 엮은 노전, 볏짚과 왕골로 만든 지적, 왕골로 만든 돛자리 등을 깔았다(김성희, 2002).

풍속화에서 자리를 짜는 남자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표 3-1>. 양반 남성도 자리를 짰던 것으로 보이는데 김홍도의 ‘자리 짜기; 풍속화에 남편이 자리를 짜고 아내가 직조를 하고 있는 다른 한 쪽에서는 아들이 글공부를 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문자 교육은 양반계층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화 속의 자리 짜는 남자는 양반 남자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김득신의 야묘도추 그림에는 망건을 쓰고 있

<표 3-1> 주생활과 관련된 남성의 가사노동

작가	제목	제작연도	남성의 가사노동	
			가내노동	가외노동
김홍도	자리 짜기	19세기	자리 짜기(여자는 직조하고)	
김준근	자리 짜기	19세기	자리 짜기	
김득신	야묘도추(파적도)	18세기	자리 짜기	
조영석	설중방우도	18세기	말을 매려고 집안으로 끌고 가는 소년	
김희겸	석천한유	18세기	말 손질하기	
작자미상	평생도	20세기	말 손질하기 소 물기	
김홍도	세마도	19세기	집 앞 물가에서 말 목욕시키기	
작자미상	평생도	20세기	대가 집의 마당 쓸기	

던 남자가 고양이를 쫓다가 자리 짜던 기구를 넘어뜨리는 것이 그려져 있다. 망건은 사대부 계층과 중인 계층에서 사용하던 모자였으므로(국립민속박물관, 2002), 그림 속의 자리 짜던 남자는 중상류 계층의 남자라고 볼 수 있다. 김홍도의 ‘자리 짜기’ 그림에 상류 가정의 여성이 직조를 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옷감을 짜는 일이 양반을 포함한 거의 모든 여성이 하던 일이었던 것처럼 자리 짜는 일은 양반 계층을 포함해 거의 모든 계층의 남성이 하던 일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청소는 부유한 가정에서는 여자 노비가 하였다. 권호문(1532-1587)의 송암집에 ‘남자 중은 대청과 뜰을 청소하고 여중은 방을 청소한다.’고 하였다. 작자미상의 ‘평생도’에서 노비로 보이는 남자가 대가(大家) 집의 마당을 쓰는 것을 볼 수 있다<표 3-1>. 부유한 가정의 방청소는 종이를 바닥 재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큰 힘이 필요치 않아 여자가 청소를 하였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일반 가정에서는 자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를 털거나 교체하는 일에 적지 않은 힘이 들었을 것이므로 남자가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외에 남성들은 주요한 교통수단이자 운반수단인 말과 나귀를 손질하고 소를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 내외법으로 여자의 외출이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외부와의 의사소통은 주로 남성에게 의해 이루어졌다. 양반 남성이 외출하는 경우에는 하인이나 노비가 끄는 말과 나귀를 타고 다녔는데, 풍속화에서 하인으로 보이는 남자와 소년이 말을 몰고 손질하는 것을 볼 수 있다<표 3-1>. 여자들도 외출하는 경우 소나 말을 타고 다녔다. 김홍도의 ‘노상 파안’ 그림에 남편과 함께 나들이 하는 부인이 아기를 안고 소를 타고 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작자미상의 ‘행려풍속도’에서도 여자가 아기를 안고 소를 타고 있고 그 앞에 동자

가 소를 몰며 길을 가고 있다. 이처럼 말과 소는 여성과 남성 모두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였지만 여자가 말과 소를 손질하고 관리하는 것을 볼 수 없다.

조선시대 여성은 난방연료를 공급하는 일, 자리를 만드는 일, 말이나 소를 손질하고 관리하는 일 등 주생활과 관련된 가사노동에는 거의 관여치 않았다고 볼 수 있다.

4. 자녀양육과 관련된 가사노동

자녀돌보기는 조선시대 여성이 하던 대표적인 일이었다. 풍속화에서 부인과 할머니, 누이들이 아기 안아주기, 업어 주기, 젖먹이기, 놀아주기와 같은 아기돌보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표 4-1>.

조선시대 여성의 역할 중 특히 양육자로서 여성의 역할이 중시되었던 것은 여성의 젖가슴이 드러나는 회화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남성의 성적 유희의 대상자였던 기녀의 그림에는 가슴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오히려 부인을 그린 그림에서는 젖가슴의 노출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신윤복의 ‘아기 업은 여인’의 그림에 부인은 젖가슴을 드러내고 있고, 채용신이 그린 ‘윤낭자 상’에도 아기를 안은 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젖가슴을 드러내고 있다<표 4-1>. 김홍도의 풍속화 점심에서는 농부들이 점심을 먹고 있는 한편에서 부인이 젖가슴을 드러내고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다<표 4-1>.

조선시대 여성은 외출하더라도 얼굴을 장옷 등으로 가려야 할 만큼 신체적 노출을 극히 억제하던 사회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인의 신체 일부의 노출이 허용된 것은 부인의 젖가슴이 성적인 것으로서보다 모성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1〉 자녀양육과 관련된 여성의 가사노동

작가	제목	제작 연도	여성의 가사노동	
			가내노동	가외노동
채용신	윤남자 상	19세기	부인의 아기 안아주기	
김홍도	점심	18세기		농부들에게 점심을 날라주고 한쪽에서 아기에게 젖먹이기
김득신	점심	18세기		논에서 젖먹이기
마군후	나물 캐는 여인	19세기		논에서 젖먹이기
김준근	가난한집 여인	19세기	아기 업어주기	
김홍도	길쌈	18세기	할머니의 아기돌보기	
우진호	경직도병	19세기	소녀의 아기돌보기 할머니의 아이돌보기	
작자미상	평생도	20세기	할머니의 아기돌보기	
윤덕희	오누이	18세기	누이가 동생돌보기	
김홍도	회혼식	18세기		품 팔면서 자녀 돌보기
김홍도	파안홍취	18세기		아기업고 목화 따기
김홍도	춘경우경	18세기		아기업고 나물 캐기
작자미상	평생도-서당	20세기	딸과 어머니가 방에서 담소하기	
작자미상	평생도-삼일유가	20세기	딸과 어머니가 방에서 함께 지내기	

〈표 4-2〉 자녀양육과 관련된 남성의 가사노동

작가	제목	제작 연도	남성의 가사노동	
			가내노동	가외노동
김홍도	행려풍속도병	18세기	서당선생에게 글공부 가르치는 것 감독하기	
작자미상	평생도-서당	20세기	아들이 서당선생에게 글공부하는 것 감독하기	
김홍도	행려풍속도병	18세기		아기 업고 가기 (부인은 아기를 안고 소를 타고)
김홍도	노상파안	18세기		아기업고 가기 (부인은 아기를 안고 소를 타고)

부인이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성별분업을 통해 인정받는 한편 분업을 이용하여 남성이 만든 내외법의 규제, 노출의 억제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도 풍속화에서 엿볼 수 있다. 필자 미상의 미인도에 양반으로 보이는 회장저고리

를 입은 여인이 젖가슴을 드러내고 한쪽 팔을 위로 올린 양육과 관련 없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국립중앙박물관, 2002). 아기를 업거나 안지도 않는 젖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인은 젖가슴을 제한 없이 노출시킬 수 있었다.

신윤복의 회화 ‘단오풍정’에서도 빨래하러 가는 여인이 선명하게 젓가슴을 드러내고 있다. 한쪽에서는 기녀들이 젓가슴을 드러내고 몸을 씻고 있는 것을 소년들이 훑쳐보고 있다. 조선시대에도 젓가슴은 명백히 성적인 유혹의 대상이었음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다. 조선 시대에 부인들은 성별분업에 따라 육아를 담당하였지만 가부장적인 규제보다 선행하는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이용하여 성적인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육아는 어머니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었지만 양반가에서 어머니 뿐 아니라 유모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유모는 혼수로 준비될 만큼 양반가 여성에게 필수적인 존재였다(김성희, 1999). 유모를 둘 수 없었던 일반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아기를 양육하고 돌보아야 했다. 따라서 어머니가 일할 때도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풍속도에서 어머니가 발일을 하면서, 목화를 따면서, 품을 팔면서, 농부들에게 점심을 날라다 주면서 아기에게 젓을 먹이고 돌보는 것을 볼 수 있다<표 4-1>.

어머니 외에 할머니나 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도 아기를 돌보았다. 김홍도의 길쌈 풍속화에 며느리로 보이는 여자가 길쌈을 하는 동안 할머니가 손자를 업고 돌보는 것을 볼 수 있다. 누이가 동생을 돌보는 것도 볼 수 있어서, 유모가 없더라도 할머니나 딸 등 여성이 있으면 부인의 아기돌보기를 도왔다.

가족 내의 남성은 아기를 기르는 육아활동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않았지만 여성의 육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김홍도의 행려풍속도병에 부인은 아기를 안고 소를 타고 가고 있고 남편이 아기를 업고 가고 있다. 풍속화에서 남성이 자녀를 돌보는 장면을 보기는 어렵지만 남성이 부인의 자녀돌보기를 보조하였던 것을 쇠미록에서 볼 수 있다. ‘딸

이 밤 2경에 아이를 낳자, 젓이 나오지 않아 태수에게 젓 있는 관비를 시켜 젓을 먹이게 하였다(병신년 1월 29일).’ 조선시대의 남성은 직접적으로 아기를 먹이고 기르는 양육자는 아니었지만 양반일지라도 육아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딸 교육은 어머니가 아들교육은 아버지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자 교육을 받지 않았던 딸들은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전승되는 문화를 통해 교육을 받았다. 회화 중에 어머니와 딸이 함께 방에서 담소하며 함께 지내는 것을 볼 수 있다<표 4-1>.

아들 교육은 남성인 가장이 담당하였는데 이의 근거는 풍속화에 잘 나타난다. 양반의 자제만이 문자를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조선시대에 서당선생과 글공부하는 아들을 감독하는 가장을 김홍도와 작자미상의 그림에서 볼 수 있다<표 4-2>. 김홍도의 ‘자리 짜기’ 풍속화에서는 부부가 일하고 있는 방 한쪽에 글을 읽고 있는 아들이 그려져 있다. 부부가 같이 감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아들이 공부하는 것을 어머니가 감독하는 것을 그런 풍속화는 찾아 볼 수 없다. 조선시대에 문서교육을 받았던 것은 아들이었고 아들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도 감독하였던 것은 가장인 남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아버지는 주로 아들 교육에만 관여하고 딸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었던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쇠미록에서 가장인 오희문(1990)은 자녀인 딸들과 가끔 여가를 함께 보내고 있다. ‘단녀와 바둑을 두고 호도놀이를 하였다(계사년 11월 4일)’, ‘식사 후 인아, 단녀와 함께 지팡이를 짚고 뒤 봉우리에 올라 손수 고사리를 꺾어 가지고 왔다(갑오년 3월 15일)’는 기록은 아버지가 딸들과 보내는 시간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현대 사회에서 자녀돌보기 및 교육 관련된 일은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분업은 전통적인 성별분업에 기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일은 주로 여성이 하였더라도 남성의 지원이 있었고 공식적 문자 교육과 관련된 것은 주로 남성이 관여하고 감독하였다. 자녀양육과 교육에 관한 한 성별분업은 조선시대보다 현대 사회에서 더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VI. 결론

조선시대의 전통적 성별분업은 오늘날 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성차별의 근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남존여비의 관습과 내외법에 따라 가사노동은 가내에서 생활하는 여성만의 일이 되었고 사회활동은 남성의 일이 되어 여성은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성별분업이 기초하는 유교이념을 보면 부부유별이라 하여 차별보다는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풍속화에서는 남성이 가내에서 가사노동을 하는 것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당시의 사회 윤리는 성인지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가사노동은 상호보완적으로 수행되었음에도 조선시대는 여성과 남성의 일에 차별을 두었던 사회로만 간주되고 있다.

조선시대의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이념과 통념, 실제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성별분업의 성인지적 요소에 관심을 갖고 이를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조선시대 여성은 차별을 받는 가사노동의 수행자로 당연시되었고 본성의 다양성은 무시당한 채 억압받는 소극적인 존재로만 폄하되어 왔다. 조선시대 여성을 바라

보는 이러한 단선적 사고에서 벗어나 시각을 다각화하고 여성 내면의 다양성을 나타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풍속화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가사노동에 나타나는 성별분업을 재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선시대의 가사노동은 차별적으로 여성에 의해서만 수행된 것이 아니라 남성에 의해서도 상당부분 상호보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식생활과 관련된 가사노동에서 여성들은 주로 조리하기, 방아 찧기, 물 길어오기, 밭에서 식료를 마련하는 일을 하였던 반면 남성들은 농사와 사냥 등으로 주된 식량과 식품을 조달하였고, 취사연료의 조달, 힘이 많이 드는 식품의 제조, 방아 찧기, 물 길어 오기, 상 나르기와 상시중들기 등의 일을 하였다.

남자가 부업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속담이 요구하는 것처럼 조선시대 남자들은 식생활과 관련된 가사노동과 유리되어 있지 않았다. 적지 않은 일들이 남성에 의해 이루어졌고 방아 찧기, 물 길어 오기는 남녀가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전통적으로 속담에서 남성의 부업 출입을 금지해온 것은 남성이 우월주의에 입각해서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의도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속담과는 달리 조선시대 남자들은 부업과 관련된 일에 상당부분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성들 스스로 위협적으로 남성의 출입을 제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부역을 출입하는 하류층 남성에 대한 상류층의 우월주의가 남성의 부업 출입을 경계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는 조리를 주로 하던 여성이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남성의 부업 출입을 제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식생활 뿐 아니라 의생활과 관련된 일에서도 남성의 관여가 적지 않았다. 여성들은 직

조와 관련된 일, 바느질, 다듬이질, 세탁, 다림질을 한 반면 남성들은 직조 도구 제작 및 수리, 신 만들기, 모자 만들기를 하였다.

남녀의 역할분담은 식생활에서보다 의생활에서 더 분명하였는데 특히 여성의 일로 알려진 직조에 남성이 관여한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여성은 남성의 일로 간주되는 농사짓기에 보조적으로 참여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배타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조선시대에는 직조물이 갖는 사회경제적 중요성과 가치가 적지 않았으므로 남성 지배적인 사회에서 남성이 직조에 관여하고 독점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조가 여성만의 일이 된 것은 남녀 간의 성별분업이 경쟁적인 차별성보다 보완성에 기초하였고, 여성이 오히려 성별분업을 이용하여 남성을 배제하였던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여성은 농산물 못지않은 교환가치를 가진 직조물을 생산함으로써 경제력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노동 영역을 보호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세탁도 여성만이 하던 일이어서 일의 수행에 여성의 배타성이 작용하였을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세탁은 주로 강가나 개울가 등 가외에서 행해졌고 힘이 많이 드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관여가 없었다. 물 길어 오기에 남성도 관여가 있었던 것만큼 세탁도 남성이 개입할 수 있었다. 하류층의 남성조차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은 외출이 제한된 여성이 유일하게 개방된 가외에서의 일을 확보하기 위해 남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주생활은 거의 남성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방청소를 여자가 한 것 외에 자리를 짜는 일, 마당을 청소하는 일, 난방연료를 공급하는 일, 교통수단인 말이나 소를 관리하고 손질하는 일은 남자들이 하였다. 주생활과 관

련된 가사노동에는 여성의 관여가 거의 없어서 오히려 이 영역에서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성별분업이 역차별적으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육아에는 남성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남성들은 자녀 교육 특히 아들의 문자 교육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하였고, 육아는 어머니를 비롯하여 유모, 할머니, 누이 등 여성들만이 하였다. 여성의 양육자로서의 역할은 가부장적 규제에 선행하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로 인정을 받았다. 내외규범의 노출 억제에도 불구하고 부인들이 젓가슴을 드러내고 외출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부인의 젓가슴 노출은 육아 역할 수행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일면 내외법에 의해 억압된 성적 욕구를 노출시킨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여성의 젓가슴이 육아의 도구이면서 한편으로는 남성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대상이 되는 것은 풍속화에서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육아라는 성별분업을 이용하여 자신의 억압된 성적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처럼 식생활 및 의생활, 주생활, 자녀양육에서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적지 않았던 것은 유교 이념이 지향하는 것처럼 남녀가 보완적으로 가사노동을 수행하였던 것을 보여준다. 조선시대의 성별분업이 여성을 가사노동 수행자로 제한하였던 성차별적인 것으로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여성들이 내외법으로 가외의 활동을 제한당하는 불이익을 받고는 있었지만 성별분업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고유한 역할과 공간, 욕구를 보호하고 적극 표현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조선시대에 여성들은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자유로운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역사가들은 보고 있다(한국여성연구소, 2000). 재산상

속, 봉제사, 족보의 기록 등에서 조선 초기에는 남녀 구별 의식이 강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배계층이 여성의 생활을 통제하기 위해 강요하였던 가부장적 윤리는 16세기 중반 이후 조선시대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고 보고 있다. 가사노동의 분업에서도 가부장제가 확고히 뿌리내리기 전까지 남녀차별 의식은 강하지 않았으며 동등한 보완의 분업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집권층이었던 중하류의 사회계층에서는 후기까지도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관습을 가사노동을 통해 일부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가사노동을 수행하던 남성들은 대부분 양반이 아닌 중하류 계층의 남성이었다. 양반은 육체노동을 경시하고 정신노동을 숭상하였으므로 관리적인 일 외에 육체적 가사노동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자리 짜기는 거의 모든 계층의 여성이 직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양반 계층에서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양반을 제외한 중하류층의 남성은 방아 찧기, 물 길어오기, 농사 짓기, 식품제조하기, 신 만들기, 장작 마련하기 등의 육체적인 가사노동을 수행되었다. 조선시대의 가사노동 분업은 성별보다는 신분의 차이에 따라 수행에 차이가 있었다.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가사노동 수행 실태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은 노동계층이 양반이 아닌 일반 농민이나 노비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양반 계층은 육체노동을 경시하였으므로 신분이 낮은 계층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노동으로 간주하여 기록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신분계층이 붕괴되고 여성과 남성의 일이 분리되는 산업화 과정에서는 양반계층의 중하류 계층에 대한 우월주의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우월주의로 대치되어 중하류 계층의 남성이 수행하던 가사노동이 여성의 일로 왜곡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조선시대 가사노동의 성별분업에 대한 차별적 통념은 사실이나 실제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남성의 계층 간 차별이 가부장적 우월주의와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성별분업이 성차별적이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는 결과는 앞으로 조선시대 성별분업을 성인지적 차원에서 조명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성차별의 근원이 아닌 성인지의 근원으로서 새롭게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의 남성의 가사노동 공유와 분담에 관해서도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탈피해야 할 관습이 아니라 오히려 역할공유의 기원으로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성별분업은 성평등 사회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퇴화시켜야 되는 여성에게 불리한 구습으로만 간주되어왔다. 그러나 성별분업은 차별적 관행의 조건이 되면서도 일면 여성의 역할과 영역을 보호하는 유용성도 갖고 있었다. 성별분업을 성평등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고동환(1994). 조선후기 시장과 상인. 역사비평 24호, 11-122.
- 2) 국립민속박물관(2002). 한국복식2천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 3) 국립중앙박물관(2002). 조선시대 풍속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 4) 권호문, 민족문화추진회편(1990). 송암집.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 5) 김성희(1999). 가사노동의 변화: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149-158.
 - 6) 김성희(2001). 여성의 직조노동과 지위의 변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67-82.
 - 7) 김성희(2002). 전통사회 여성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의 노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25-36.
 - 8) 김영희(1938). 외국인이 본 40년 전 조선부인. 여성 12월호. 서울: 조선일보사.
 - 9) 김용덕(1981). 조선후기사상사연구. 한국문화총서 제 21집. 서울: 을유문화사.
 - 10) 김용섭(1972). 18-19세기의 농업사정과 새로운 농업경영론. 19세기의 한국사회, 171-216. 서울: 대동문화연구원.
 - 11) 민족문화추진회편 (1989). 해동야승. 서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 12) 백영자(1998). 한국의 복식. 서울: 경춘사.
 - 13) 빙허각 이 씨, 이민수 역(1988). 규합총서. 서울: 기린원.
 - 14) 안휘준 편저(1986). 국보 19(회화 1). 서울: 예경산업사.
 - 15) 안휘준 편저(1986). 국보 20(회화 2). 서울: 예경산업사.
 - 16) 오희문(1990). 쇄미록. 해우오씨추탄공파종중.
 - 17) 유희경(1983). 한국복식사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18) 유희춘(1993). 미암일기. 담양향토문화연구회. 광명문화사.
 - 19) 윤열수(2000). 민화(1). 서울: 예경.
 - 20) 윤열수(2000). 민화(2). 서울: 예경.
 - 21) 이민주(2004). 17-18세기 조선시대의 사회현상과 복식변화. 민족문화연구 41(0), 61-84.
 - 22) 이복만(1948). 이조사회경제사. 서울: 대성출판사.
 - 23) 이사벨라 버드 비숍, 이인화 역(1994).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서울: 살림.
 - 24) 이종호(1993). 조선시대의 경제사상. 서울: 민속원.
 - 25) 이태호(2000). 풍속화(하나). 서울: 대원사.
 - 26) 이태호(2000). 풍속화(둘). 서울: 대원사.
 - 27) 정병모(2001). 한국의 풍속화. 서울: 한길아트.
- 접수일 : 2007년 7월 12일
 - 심사일 : 2007년 7월 23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8월 17일